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아르헨티나 원전 보수 사업 참여**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원자력 발전소 보수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월성 1호기와 같은 모형의 1천MW급 중수로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며, 내년 중 추가로 1기의 원전을 발주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9월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선 노후한 원전 2기에 대한 수명연장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지난달 아르헨티나를 방문, 수명 연장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전력공사,  
에넬과 스마트 그리드 CCS 협력**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지난달 11일 삼성동에서 이탈리아 전력·가스공급 업체 에넬(Enel)과 스마트 그리드, 이산화탄소 포장 및 저장기술(CCS) 분야 기술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에넬은 세계 40여개 국에 9만 5327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력·가스공급 업체로 이번 LOI 교환을 통해 양사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및 계통운영 분야, CCS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관련 기술분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UAE 원전건설  
정보시스템 가동 임박**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건설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내년 1월 가동된다. UAE 원전 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시스템 구축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6일부터 현지 데이터센터로 옮겨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은 내년 1월 본격 가동한다. 한수원은 그간 대전의 주전산센터에서 정보시스템을 시험 운용해 왔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국전력에서 UAE 원자력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정보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또 한수원은 UAE 데이터센터도 직접 짓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아부 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km 떨어진 브라카 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각종 공조시설과 네트워크, 전원공급장치(UPS) 등이 설치되고 있다.

## 원자력발전기술원 황태원 실장,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기술원(원장 이주상) 방사선기술실의 황태원 실장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세계인물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1년 발행본에 등재가 확정됐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및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의 주요 도서관과 대학에서 국제 인물검색에 사용된다. 화학공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황태원 실장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분야 전문가로서 남다른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수력원자력이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기술 개발에 공헌해 왔다. 이번 마르퀴즈 인명사전에 등재가 결정된 것은 유리화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고 기술수출의 기반을 구축한 업적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 남동발전, 협력사와 '동반성장 추진선언식' 개최

###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추진선언식 및 간담회

2010. 11. 18(목)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지난달 18일 본사에서 성일에스아이 엠 등 20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추진선언식' 을 개최했다.

남동발전은 이날 선언식에서 ▲기술역량 강화 ▲지속성장 기반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동반성장' 의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 확대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동발전은 별도의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동반성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중부발전, 지속가능경영 '최상위 등급' 획득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2010 주요기업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에서 전체 5등급 평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전체 18개 세부 영역 중 16개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참여기업 중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중부발전은 지난 2006년 발전회사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회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 서부발전, 인도네시아 석탄해상 선적터미널 건설 MOU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지난달 22일 자카르타에서 남부 깔리만탄 지역에 연간 1000만톤 석탄을 선적할 수 있는 석탄해상선적터미널을 건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석탄 매장량은 풍부하나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깔리만탄 지역에 해상선적터미널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인근 중소 규모 광산에서 나오는 석탄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서부발전은 이날 자원개발사인 대우로지스틱스사, 탄광 소유사인 PT. APC사, PT. SURTON사와도 각각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남부발전, STX팬오션과 15년간 유연탄 수송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최근 서울 삼성동 남부발전 본사에서 STX팬오션(대표이사 배선령)과 유연탄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3,3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이번 계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15년간 STX팬오션의 선박을 이용해 유연탄을 장기수송할 수 있게 됐다. 이 계약은 남부발전이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발전용 유연탄을 대형 파나막스 선박을 통하여 15년간 국내로 수송하는 계약으로, 총 운송 물량은 약 3500만 톤에 달하며 계약기간은 순차적으로 병행돼 1차 계약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차 계약은 오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실행된다.

## 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소 기기냉각수 폐열회수 설비 설치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내년 6월까지 일산열병합발전소에 흡수식 히트펌프를 활용한 기기냉각수 폐열회수 설비를 설치한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이 설비는 발전소 기기냉각수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고온의 온수를 만들어 지역 난방열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용수비 절감효과는 연간 26억여 원에 달하고, 1만 3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전KPS, 해외 현지 우수직원 초청 현장교육 실시



한전KPS(사장 태성은)는 지난달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등 해외 현장에서 채용한 우수 직원 12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교육을 실시, 한전KPS의 기술력과 운영 실태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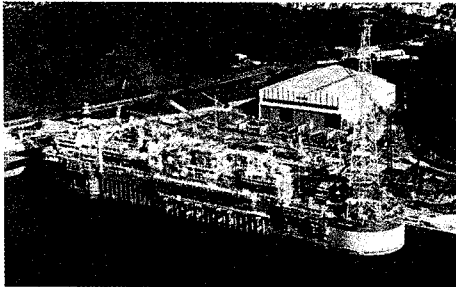
이번 현장교육은 국내 발전소의 운전 및 정비기술 체험학습을 통하여 현지직원들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우수 현지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성공적인 O&M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 전력거래소, 인재개발 우수기관 정부인증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2010년도 인재개발우수기관 인증제'에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달 22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인증수여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전력거래소는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로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규모 FPSO 건조 성공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를 독자기술로 건조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2월 프랑스 토탈(Total)사로부터 수주한 저장용량 200만 배럴급 초대형 FPSO를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지난달 11일 울산 해양공장에서 명명식을 가졌다. 이 FPSO는 최종 설치될 나이지리아 원유 필드의 명칭을 따 '우산(USAN) FPSO'로 명명됐다.

17억 달러 상당의 우산 FPSO는 길이 320m, 폭 61m, 높이 32m로 자체 중량만 11만 6000t에 달한다. 하루 16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sup>m</sup>의 천연가스를 생산·정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1일 석유 사용량과 맞먹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설계에서부터 자재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독자 기술로 제작함으로써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FPSO 설계에서 3차원(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모듈(상부구조를 구성하는 단위) 설치 시 파이프 간섭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최첨단 설계 기술도 적용했다.

## 두산중공업, 1000억 원 규모 인도 화력발전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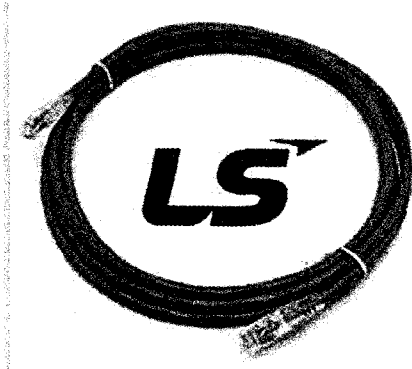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은 독일 지멘스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4일 독일에서 지멘스가 인도 다헤즈(Dahej) 특별경제지역에 건설하는 디젠 복합화력 발전소에 들어갈 3기의 배열회수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배열회수보일러는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이용해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성해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설비로 두산중공업은 이 설비들을 설계에서부터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해 201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 LS전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케이블 개발



LS전선(대표 구자열)이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을 절연재로 사용한 케이블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케이블 절연재로 사용된 폴리에틸렌은 화학적 변형인 선형 고분자를 그물망 형태로 결합하는 가교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해왔다.

이번 개발은 해저 케이블과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이은 쾌거로 LS전선은 친환경 전선 개발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됐으며, 전선 기술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

LS전선의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제품은 연속사용온도를 90℃급에서 110℃급으로 향상시켜 케이블 전력 수송 용량을 기존보다 35% 증대시켰고, 기존 폴리프로필렌보다 유연성을 부여하는데도 성공했다.

## 프로컴시스템, 발전기 제어계 특성시험장치 국산화 개발, 국내최초 시행



프로컴시스템(사장 윤상현)은 최근 '발전기 제어계 특성시험장치'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군산복합화력에 국내 최초로 적용, 시행했다.

'발전기 제어계 특성시험장치'는 서부발전이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로 지난 2008년 7월 개발에 착수해 지난 7월에 개발 성공했으며, 프로컴시스템이 개발기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시험에 적용한 '발전기 제어계 특성시험장치'는 외국산 장비에 비해 가격이 약 40% 저렴하고 성능과 품질이 외국산에 비해 우수하여 향후 발전기 제어계 특성시험에 비용절감과 정확한 시험결과 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EA